전남 교육가족, "충무공 탄신일 맞아 명량대첩지를 걷다"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서포터즈 2회차 코스 완보
전남 '義' 정신 계승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힘 보탠다"

전남의 교육가족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서포터즈 2회차 걷기 활동으로 서해랑길 6코스를 완보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7일 오전 자율적으로 모인 교육가족들과 함께 진도 용장산성을 출발해, 서해랑길 6코스로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앞까지 15km를 걸었다.

교육가족들은 △ 용장산성(삼별초 항몽 유적지) △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길 △ 벽파진(명량대첩 전첩비) △ 신동습지보호지역 △ 진도타워 △ 울돌목 코스를 걸었다.

특히 이번 걷기 활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4.28일) 479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돼,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 앞에서 묵념하고, 전남'의'(義) 정신을 글로컬 교육으로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서포터즈는 이번 박람회가 국내외 참여국의 열렬한 참여 속에 '글로벌' 콘텐츠가 완성되고 있는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 등 전남이 가지고 있는 '로컬'의 귀한 자산들을 알리는 데 집중하며 걷기 활동을 잇는다.

또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박람회 주제가 '세상에 소리쳐 글로컬'의 노랫말처럼 앞으로 남은 3회 걷기 동안 높은 참여도를 이끌면서 박람회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중심의 글로컬 교육 실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글로컬 미래교육

콘퍼런스·전시·미래교실·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등 다섯 개 섹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glocaled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장성 동화초, 책의 날 행사 운영

장성 동화초등학교(교장 김선미)는 4월 26일 책의 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하여 샌드아트 공연, 책놀이수업, 그리고 업사이클링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강당에서 열린 샌드아트공연은 특별한 시각적 효과와 함께 색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 부드러운 사막 모래로 만든 작품들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생들이 직접 샌드아트를 배워보는 기회를 가졌다. 모래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안겼다.

이어서 학부모회의 지원 아래 진행된 책놀이수업은 학생들에게 책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제공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책과 친밀해질 수 있는 놀이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동조합 "안전한 교육·근무환경 개선" 합의

교육활동 시 교사 · 학생 안전한 이동 지원 마련 등 실무교섭 마무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2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가 요구한 총 204항의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원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교사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 문제'에 대해 김여선 정책국장이 직접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가장 최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교육활동 시 교사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은 뜨거운 감자였다. 전남처럼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 인솔에 대한 것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학생 인솔 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도교육청은 교원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인솔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인솔 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나주 노안초, 작가와의 만남 행사 개최

나주 노안초등학교(교장 이정희)는 4월 25일 목요일, 2시간에 걸쳐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전교생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었다. 김윤정 작가를 초대하여 『똥자루 굴러간다』, 『엄마의 선물』, 『친구에게』 등 7권의 작품을 함께 읽으며 창작 활동과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작가와 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글쓰

기와 이야기 구성에 관한 아낌없는 조언을 들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오성초, "환경 지키는 과학의 힘 마음껏 펼쳐보아요"

과학의 날 주간 운영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최연옥)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놀이와 함께하는 과학의 날 주간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이 AI, SW, 창의과학, VR, 탄소중립 실천 과학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 주간 교육과정으로 계획하여 진행함으로써 학년별 특성과 지속 가능한 과학·환경교육의 실천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행복놀이를 중심으로 DIY 홀로그램 제작·체험, 업사이클링 과학·환경교육, 음악과 과학의 융합수업 등 다양한 에듀테크와 융합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독창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년별 행복놀이 주제 프로그램으로 곤충의 세계 탐험(1학년), 진공의 원리 실험(2학년), 부엉이피리 제작으로 알아보는 소리의 세계(3학년), 기하도형이 갖는 과학적 비밀(4학년)을 통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이해를 높였다. 나아가 업사이클링을 통한 과학·환경교육(5학년), 홀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미래세계와 탄소중립 과학·환경교육(6학년)을 실시함으로써 일상

경험과 과학적 원리를 융합하는 실제 체험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박순철 기자